

# 부산 팬 울리는 '부산 신구장 호약'

(빌공)

오 시장, 지방선거때 야구장 건축 공약 부산시, 잔디교체 외 아무런 계획 없어 허구연 위원 "새 구장이 최우선이지만 사직구장은 리모델링이라도 서둘러야"

야구를 표심 잡기에 이용했지만 당선 후에는 입장을 바꿨다. 부산 팬들은 십수 년째 같은 현상을 지켜보고 있다. 정당이나 이념을 떠나 이번에도 정치권은 야구를 이용한 것일까.

1985년 개장한 사직구장은 프로 10개 구단 홈구장 중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1960년), 잠실구장(1982년) 다음으로 오래됐다. 당초 축구와 야구 겸용 구장이었던 사직구장은 이미 잔디는 물론 각종 시설물 모두 낙후됐다. 야구 전용구장으로 지은 잠실구장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부산 팬들의 신구장 건립 여론은 십수 년째 뜨거웠다. 피부로 그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들의 표심이 필요한 정치권은 야구를 이용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서병수 당시 시장(자유한국당)과 오거돈 현 시장(더불어민주당)은 나란히 야구장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 전 시장은 '뚝구장 신축을, 오 시장은 개방형 야구장 건축을 다짐했다.'

오 시장이 당선됐고, 이후 부산시의 움직임은 없다. 롯데는 2019시즌을 앞두고 내외야 잔디를 전면 교체 중이다. 2006년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꾼 이후로 내·외야 잔디에 모두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가 8억3000만원 상당을 투자했고, 부산시가 향후 임대료에서 이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부산시가 현 시점에서



사직구장이 2019시즌을 앞두고 내·외야 잔디 전면교체 공사를 진행 중이다. 롯데 지어연씨가 8억3000만원을 지불한 뒤 부산시 측이 이를 임대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부산시장 후보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신구장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선거 후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사진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지역 야구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잔디 교체 정도뿐인 셈이다.

'인프라 전도사' 허구연 MBC 해설위원은 28일, "롯데의 연고지 라이벌인 NC 다이노스는 2019시즌부터 국내 최고수준의 신구장을 사용한다. 대전도 신구장 건립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로써 사직구장은 KB O리그에서 가장 낙후된 경기장이 됐다"고 아쉬워했다. "새 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산시 차원에서 비용 등 여러 가

지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다면 리모델링만이라도 몇 개년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마디 핵심을 곁들였다.

"미국 메이저리그의 리글리필드(사카고 컵스 홈구장), 팬웨이파크(보스턴 레드삭스 홈구장)는 개장한지 100년이 넘었다. 예스러운 멋은 살리면서도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줬다. 지금 사직구장의 리모델링은 땀질일 뿐이다."

한 원로 야구인은 "롯데가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했던 1992년에는 홈 관중 120만 명을 동원했다. 부산 팬은 물론 롯데를 사랑하는 팬들이 전국에 얼마나 많은가"라며 한탄했다. "부산에 이러한 인파를 동원할 콘텐츠는 야구와 부산국제영화제뿐이다"며 "신구장은 롯데 구단이 아닌 부산시 민과 전국의 야구팬을 위한 투자다. 부산시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 외인타자-베테랑투수 채운 LG '무주공산' 3루수는 FA로 영입?

LG 트윈스가 새 외국인 선수와 베테랑 투수 영입 등으로 부지런히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28일 내야수 토미 조셉과 계약을 맺고 세 명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다.

2018시즌 KBO 리그 평균자책점 2위(3.07)를 달성한 타일러 윌슨과는 재계약했고, 21일엔 그의 파트너로 우완투수 케이시 켈리와 손을 잡았다. 외에도 장원삼, 심수창 등 연륜을 갖춘 투수들을 영입하면서 마운드 강화 및 세대교체의 밑바탕을 마련했다.

조셉을 새로운 1루수로 낙점하면서 김현수는 내야 수비 '아르바이트'에서 자유로워졌다. 올 시즌 3루를 책임져야했던 아도니스 가르시아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오래 자리를 비우면서 김현수는 본래 포지션인 좌익수 대신 1루수로 나서 511타석 가운데 257타석을 소화했다. 3루는 양석환이 맡았다. 조셉의 합류로 김현수는 마침내 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LG의 잔여 과제는 3루수를 찾는 일이다. 양석환은 상부에 지원했다. 1월 10일 합격자가 발표되는데, 떨어질 경우에도 나이 때문에 반드시 입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실상 2019시즌 전력외다. 차명석 단장도 "3루수가 없다. 류중일 감독이 고치 마무리 캠프에서 선수들을 보겠다"고 했다.

외부 프리에이전트(FA) 영입도 한 방법이다. 최정(SK 와이번스), 김민성(넥센 히어로즈), 송광민(한화 이글스) 등 각 팀 주전 3루수가 대거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LG는 'FA 영입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차 단장도 "FA 영입 생각은 없다. 트레이드 카드를 맞춰보겠다"고 설명했다. 서대명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 SK 서진용 고군분투... "구속회복은 나와야 싸움"

어깨부상 후 140km대로 구속저하

SK 와이번스 서진용(26)은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나'를 믿는 것이 첫 과제다.

일본 가고시마에 열린 마무리캠프에서 투구폼 교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투구시 왼쪽으로 기울던 몸을 곧게 세웠다. 2018시즌 5월 10경기 12이닝 1승 5홀드 0자책점 행진으로 힘찬 출발을 했던 서진



SK 서진용

용은 6월 어깨 부상을 입은 뒤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시즌 내 통째로 시달렸다. 마무리 캠프에서도 어깨 치료를 병행 중이다. 이는 투구폼을 바로잡게 된

배경으로도 작용했다. 피칭 훈련장 한 편에서 가까운 거리에 공을 던져가며 새로운 투구폼을 몸에 익히고

있다. 고민이 하나 생겼다. 150km대의 강속구를 구사해 '파이어볼러'라는 수식어가 익숙한 그에게 145km의 최고 구속이 아직 낯설다. 서진용은 "손혁 코치님께서도 '구속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나도 해봐야 안다. 스피드가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으며 "뭉든 첫 시작은 어렵다. 내 몸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손 코치의 생각은 다르다. 스스로 이겨 내길 기다리며 묵묵히 서진용의 곁을 지키고 있다. 손 코치는 "150km를 던질 때보다 볼 끝이 훨씬 좋다. 그러면 파울이 나온다. 커브, 슬라이더 등 변화구 제구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덧붙여 "그동안 타자들은 서진용하면 직구가 빠른 것만 생각했을 것이다"며 "이젠 직구 구속이 145km가 나오면서도 볼 끝까지 좋다. 그러면 타자들을 상대하기 훨씬 편해진다"고 낙관했다.

"코치님을 믿고 하는 중"이라는 서진용은 "2019년엔 아쉬움 없는 시즌을 치르고 싶다. 부상 없이 올 시즌 5월처럼만 잘 댔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팬들의 기대에 야구로 보답하는 것이 제일"이라는 그는 재차 필승조의 일원이 될 새 시즌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서대명 기자 seody3062@donga.com

치킨업체에 최고기록 월매출 1억5천 신화!

"매드후라이치킨"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

최고의 웰빙 치킨!! 매드후라이!!

싱싱한 야채(채소)와 견과류로 만들어  
타업체의 웰빙치킨과 비교불가!

1일 최고 "1,000만원" 매출이 믿어지십니까?  
삼성동(198㎡) 매장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수익높고 안정적 수익으로 가맹점주님과 함께합니다.

(주)에스씨에프  
창/업/문/의
02)525-4949
지사모집중

경남 / 부산 / 경북 / 전남 / 전북

www.madfry.co.kr

"매드후라이치킨" 성공포인트!

치킨업체 최고기록  
"매드후라이치킨"이 만들어 드립니다.

- ▶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즈닝으로 어느 치킨과 비교해도 맛이 최고!
- ▶ 편리한 조리법 2일이면 왕초보자도 주방으로!
- ▶ CJ 제일제빙과 공동개발한 전용유안으로 사용
- ▶ 웨이퍼 레스토랑에 버금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01	02	03	04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bff;">입종변경시 간만 무료교체!</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bff;">가맹비 NO! 홍보비 NO!</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white;">최대한 기본집기 사용, 간편한 바꾸세요!</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white;">대출지원 3천만원 ~ 1억원</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white;">홍보지원 (매달의 전국주요 도시별 발주용 광고지(아우터)까지 포함) ~ 약 70만원 가량</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white;">전단광고물(저서면만) 5,000매 지원</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white;">오픈시 계속 100마리 지원!</p>

치킨 배달음식점인경우  
완전무상으로 입종변경!